



우리의 家 章

發行人: 沈明求  
編輯人: 沈載烈 (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 (02)2267-7857  
(02)2263-7897  
FAX: (02)2269-7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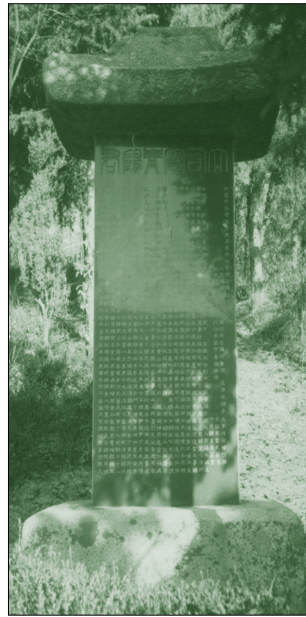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heongsongsim.or.kr

# 11世祖大司憲靑陽君諱義謙(의겸)神道碑銘 并書 下



▶ 청양군 묘소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 신도비

金(李承亨)에게 각각 시집갔다. 사위인 윤첨환의 아들은 관서인 순지(順之)와 익찬(翼贊)인 원지(元之)와 지평인 장지(澄之)와 군수인 의지(誼之)이다. 지금 五·六대에 이르러 내외자손을 다 기록할 수 없었고 그 가운데 저명한 사람은 진(摺)이 동지(東地)이며 추(樞)가 첨지(添地)이며 총(總)이 부윤(府尹)이고 권(權)이 한림(翰林)이고 유(儒)가 응교(應敎)이다. 외손에는 수찬(修撰)인 이면하(李冕夏)와 판서(判書) 이단하(李端夏)와 주서(注書) 신의화(申儀華)와 평릉군(平陵君) 신범화(申範華)와 교리(敎理) 신계화(申啓華)와 동지사(同知事) 성운환(成雲翰)과 승지(承旨) 이동명(李東冥)과 성호정(成虎徵) 정랑(正郞) 성호신(成虎臣) 부제학(副提學) 이사(李師)이며 적통을 이은 이는 좌랑(佐郞)인 징(徵)이다.

四대손인 약형(若橫)이 집안 사람들의 뜻을 모아와서 공의 명을 부탁하니 내가 후세에 태어나서 공의 세대를 상세히 알지 못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일찍이 퇴계 선생께서 도학의 말씀을 하시다가 공이 국사에 힘쓸 때 「金신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 국가의 복이라고 쓴 것을 보았다. 율곡이 일찍이 임금께 말씀드실 때 이렇게 아뢰었다.

『심모(沈某)는 외(外)인 金의 아름다운 자라. 그의 사람됨이 선행을 좋아한다.』 공은 세사에 유공한 일을 하고 군현(群賢)으로부터 어질다는 일컬음이 이와 같으나 후배들은 때때로 입을 모아 공을 공격하면서도 감히 죄과를 드러내어 헐뜯지는 못한다고 말하였다.

『심모(沈某)는 실로 죄 될만한 것은 없으나 인(仁)으로 서 오래도록 권세를 잡은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공의 일의 자초지종을 가히 알 것이다.

명(銘)에 이르되,

국운이 맞다 안맞다 하니 조종의 의논이 조리에 어긋

2페이지 계속...

율곡께서 관료들을 따라서 공을 논박한 것은 대개 분란을 진정시키고자 함이며 내막은 그런 것이 아니다. 김문원(金文元) 선생께서 늘 말씀하기를

『이런 일들은 비록 한결 같은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일어났으나 뒤가 두렵다고 경계하였다.』 하였으니 대략 당초에 공과 김공의 한때의 다툼은 모두 깊은 뜻이 없었으나 종말에 가서는 고기들이 썩으니 물을 갈아야 될 판이었다. 율곡과 우계가 모두 간당을 위해서 국사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으나 어찌 두 분의 본마음이리오. 김공 또한 깊이 탄식하며 공에게 말하였다.

『우리 두 사람이 비록 어렵게 되었으나 실상은 좋은 사이였소이다.』

그의 손자인 김세렴(金世濂) 판서(判書)가 공의 여러 손자들에게 말씀하였다.

『남들은 우리 양기를 세수(世讎)라고 들 하나 실은

세교(世交)라고 하였다.』

아! 나와 전 동료들의 풍류가 순후(淳厚)하기는 이와 같았으나 김공께서 난리세에 급박한 옥사로 인해 진출길이 막혔으니 이제 와서 그때 일을 징계할 수 없음이 이와 같고 오늘날에 와서 다시 삼분오열(三分五裂)되어 국사가 더욱 어렵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공의 죄인이다.

공의 부인 한씨는 경력(經歷) 흥서(興緒)의 딸이었고 二男一女를 두었으니 장남 윤(倫)은 청평군(靑平君)으로 습봉(襲封)되고 차남 엄(淹)은 縣監인데 증영의 정이고 딸은 참판인 윤환(尹暄)에게 시집갔다. 맏아들인 청평의 아들은 익세(翼世)이다. 둘째 아들 의정이 아들은 응교인 광세(光世)와 현감인 정세(挺世)와 청운군(靑雲君)인 명세(命世)와 부사인 장세(長世)와 안세(安世)와 필세(弼世)와 좌랑인 희세(熙世)이고 네 딸은 유준(柳筠)과 성여용(成汝容)과 판서인 이식(李植)과 이승

## 공 고

### 二〇〇六년도 하계수련대회 개최

제二十三회 하계수련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목적◆

- ▽뿌리를 배우고 조상을 숭배하는 정성을 기르고자 하는데 있으며
- ▽문중의 관향(貫鄕)인 靑松을 방문하여 시조묘소의 성묘와 신조의 역사적 사적을 순례하고
- ▽일가간에 함께 숙식하며 교류하고 또 혈육의 존귀함을 가슴으로 느껴보는 계기를 삼고자 함에 있음

#### ◆수련회◆

- ▽기간: 七月二十七日, 七月二十九日 (二박三日)
- ▽장소: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정의재 (악은공재실 · 숙박숙식 무료제공)
- ▽대상: 初·中·高·大學生 및 희망하는 중인(남녀불문)

#### ◆교육일정◆

- ▽二十七日 오후 1시: 정의재 도착 후 입소식
- 오후 2시: 6시 (四시간)
- ▽二十八日 오전 9시: 12시 (三시간)
- 오후 1시: 2시 (시조묘소 성묘)
- 오후 2시: 6시 (주왕산 관광)
- ▽二十九日 오전 9시: 10시 (一시간)
- 오전 10시: 수료식 후 해산

#### ◆강사◆

- ▽相詰(경북대공과대학장) · 특강
- ▽佑燮(성신여대 명예교수) · 충효사상의 현대적 의미
- ▽琬澤(한학수학) · 四례에 관한 상식
- ▽載烈(대중회 문화이사) · 청송심씨 뿌리교육

####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명구

- 연락처: 대중회 〇一三六七七八五七 · 〇一六四五二一八五六四
- 청송유사 〇一一一五五四一三一一
- 악은중회총무 〇一九一五五〇一三五七二

※ 청송주왕산까지 운행(운행)으로 직접 가는 교통편이 적으므로 安東까지는 기차(중앙선)나 고속버스를 이용한 후 청송가는 버스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 5명이상 단체로 참석할 경우 사전에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 송 심 씨 종보

2 제60호 2006년 7월 20일

나고 처음에는 방울 물이더니 종내는 큰물이 하늘까지  
창일 하네.  
공에게 빌미를 돌려도 공은 사양하지 않고 공이 탄식  
하여 가로되 나에게 실로 허물이 있다고 하였네.  
나를 헐뜯음이 극심하여 제현(諸賢)에게 미쳤으니 어  
찌나 불평이 많은지 나라가 병들었네. 내 마음은 슬프  
고 근심하여 편하지 않네.  
오직 공의 마음가짐은 공도(公道)와 국가뿐이니 남들  
을 그르다 아니하고 나를 옳다 아니했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물러나 기다렸으니 온갖 수모  
감당했네. 평탄한 것을 편안하게 여겼으니 이것이 공의  
위대한 아량일세.  
대개 공의 초년에는 부조(扶助)에 공을 주었고 여기에  
이르러서 그 뜻이 더욱 빛났네.  
공리에 어둡지 않았으니 어려운 일 잘 처리하고 왕국

을 사랑했으나 마침내 이루지 못했으니 진실로 그 마음  
에 기인하여 죄되지 않음이 다행일세.  
염인(廉蔭)<sup>⑮</sup>이 괴란시킨 것을 가구(賈寇)<sup>⑯</sup>가 평정하  
고 시비가 이해(利害)로써 무너졌으니 일찍이 사사다툼  
으로 마쳤네.  
근원을 쫓아 끝을 탐구하니 왕국의 정간(楨幹)<sup>⑰</sup>일세.  
오직 좁고 간악한 자가 공을 상대로 더욱 급박하니 마침  
내 원망만 남고 공의 이름 우뚝하게 섰네.  
공이 함께 물리쳤으니 도덕으로 존귀하고 공은 입다  
물고 말하지 않았으나 이치는 자연스레 명분으로 모였  
다네.  
백대가 지난 뒤에 시비가 안정되면 이 글 모두 베껴가  
서 비문으로 세기리라.

奉朝賀 송시열이 지음

-註-

13. 세수(世讎): 대를 이은 원수.
14. 습봉(襲封): 전대에 있었던 봉작을 반복하여 봉했  
다는 뜻.
15. 염인(廉蔭): 금국 고사에 실린 염파(廉頗)와 인상  
여(蔣相如).
16. 가구(賈寇): 가의(賈誼)와 구천서(寇天?). 금국 고  
사에 실린 현신.
17. 정간(楨幹): 담을 칠 때 양쪽 모서리에 세우는 기  
둥나무. 즉 인재(人材).

<끝>

## 十七世祖 吏曹判書 淸獻公 諱 宅賢 諡狀 ⑤



▶ 청헌공 묘소



공주시 의당면 울정리 ▶ 묘표석

겨울에 이조판서에 임명되니 공이 본래 권세가 있는  
요긴한 지위를 즐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 번 사양하였  
으나 윤희를 받지 못하고 특별히 타이름이 간절하여 부  
득이 명을 받았으나 지름길로 쉽게 승진하는 것을 막고  
현재(賢才)가 있으면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선발  
(選拔)함을 일로 삼았다. 여름에 세자의 혼사(婚事)에  
예관(禮官)으로써 품달(稟達)할 것이 있어 공이 나가서  
말하기를 신이 지난 날 세자시강원에서 여러 번 모셔보  
니 세자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너그럽고 어진  
도량이 일찍 성취되어 도리를 바르게 하여 날마다 현사  
(賢士)들과 친하였습시다.  
신이 들으니 숙종대왕이 어렸을 적에 현종대왕이 선정  
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을 불러서  
오게 하여 지성으로 머물게 하여 경연(經筵)에 출입하게  
하고 또한 동궁(東宮)에서 유숙하게 하며 나가서 세자  
대할 기회를 무시(無時)로 주었으니 성조(聖祖)의 일찍  
가르치는 까닭이 이와 같았습시다.  
지금 전 대사헌 김간(金幹)과 전 집의 박필주(朴弼周)  
가 임하(林下)에서 책을 읽고 있으며, 본래 금망(重望)

이 있으니 전하께서 만약 지성으로 불러오게 하여 세자  
를 보도(輔導)하게 하면 저 사람이 어찌 생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하였고 또 말하기를 사치하는 풍습이 점점  
이루어져 바로잡아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절  
약하고 검소하게 하는 것은 마땅히 궁궐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 혼사에 여러 가지 일을 절약하게 하면 이 시대의  
백성이 모두 추종(追從)하는 길이 될 것 입니다하니 임  
금이 가까이 받아들였다. 또 평시제조(平市提調) 차비국  
유사당상(差備局有司堂上)을 겸직하고 특별히 판의금  
부사(判義禁府事)에 임명되었다. 七月初一日에 이르러  
사람을 임용하고 파면하는 일이 크게 있어 공도 또한 파  
직(罷職)하고 고향의 옛 집으로 돌아갔다.  
무신년(1728년) 3월에 이인좌(李麟佐)의 역난(逆亂)  
이 갑자기 일어나자 공이 즉시 출발하여 밤을 무릅쓰고  
달려가니 이미 차비당(差備堂)겸 활인제조(活人提調)에  
임명되었다. 적을 평정한 뒤에 경축하는 반열(班列)에  
참여하고 이튿날 곧 물러날 것을 아뢰었으나 적란(賊亂)  
이 겨우 평정되어 아직도 근심 걱정이 많음으로 참아서

울에서 멀리 금어진 곳으로 가지 못하고 강이 있는 교외  
(郊外)에 집을 빌어 살았고 의금부 직책을 임명하였으나  
나가지 아니하였다. 겨울에 효장세자(孝章世子) 진종  
(眞宗)의 환후(患候)로 인하여 궁중에 들어가니 임금이  
대궐 안에 자주 들어와서 상주(上奏)하고 자문(諮問)에  
응할 것을 명령하고 계속하여 머물 것을 권유하였으나  
공이 또 의를 이용하여 하직하고 돌아갔다.

기유년(1929년)정월에 좌참찬으로써 재실(梓室)왕  
세자의 棺의 예(禮)를 마치고 바로 들로 나와 잠깐 전임  
시(前任時) 사례(事例)로써 그만 두었다가 판의금(判義  
禁) 지문녕(知敦寧) 비국당상(備局堂上) 사재감제조(司  
宰監提調)에 임명되었다.

이 때에 임금이 조정의 상황이 어름 풀리듯 해이(解  
弛)된 것을 깊이 괴로워하여 문을 닫고 스스로 잘못을 꾸  
짚으며, 특별히 충민공(忠愍公) 이건명(李健命)과 충익  
공(忠翼公) 조태채(趙泰采)의 관작을 복구하고 밖에 있  
는 신하에게 여러 번 교지(教旨)를 내려 나라 일을 나라  
와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의리로서 책임지게 하니 영  
의정 홍치중(洪致中)이 또한 편지를 전하여 분기(奮起)  
할 것을 권유하고 다같이 소리내어 복관(復官)되지 않은  
두대신을 신원(伸冤)할 것을 요청하였다.

10월에 공이 박공(朴公) 사익(師益)과 이공(李公) 현  
록(顯祿)으로 더불어 임금의 부름으로 대궐에 들어가 첫  
째로 난역(亂逆)이 일어난 까닭이 임금에게 무고(誣告)  
함을 밝히지 못한데 있다는 것을 아뢰고 연이어 의리를  
바르게 할 것을 상소(上疏)하고 사대신(四大臣)이 참화  
(慘禍)를 받은 억울함을 일체 신원(伸冤)하고 국시(國是  
: 나라의 시정 근본방침)를 밝혀 결정하는 등 여러 백마  
디 말을 아뢰니 이 날 임금의 얼굴이 온화하고 순수하여  
대답하기를 주저(躊躇)하지 않고 말씀하기를 이 일은 나  
도 헤아린 바이나 일시에 다 회복한다고 어찌 더욱 빛나  
겠는가 천천히 밖에 있는 모든 시하가 모두 모여 조종히  
상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처리하여도 늦지 않  
을 것이라 하였다.

<다음호 계속...>

## 알림 派(地域)宗會旗製作申請

今年부터 우리門中の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각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회기  
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종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 기존의 종회기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8월 15일까지 다음과 같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靑松沈氏大宗會(02-2267-7857)

宗會名	靑松沈氏	宗會
住 所		
電話番號	宅 - -	휴대폰: - -
신청내용	종회기(깃대 포함) : 180,000 원 종회기(깃대 제외) : 150,000 원	

## 五世祖 縣令公 諱 天柱(휘:천주) 秋享日 變更案内

世	諱(휘)	변경前	施行年	變更後
五世祖	縣令公(天柱)	陰曆 10月 첫째 日曜日	2004년부터 시행	음력 9월 마지막 日曜日
六世祖	判官公(世叔)	上同	上同	上同

현령공과종회 정기총회에서 2004년부터 施行決議함.

연락처 : 02-996-7788 / 016-9229-8644 / 서울 창4동 10-3 세정빌딩 302~1

## 그랜드캐니언의 장관 기행문(下)



대중회 이사 沈晨求

유령마을이다. 원주민을 너무 많이 죽여서 인디언의 유령이 온다는 마을이다. 현재 원주민도 각계 각층에서 활동은 하지만 그들이 권토금래하기란 금과부적 아닌가. 슬픈 일이다. 민주국가이면 서.....

다시 향나무 숲이다. 고사한 것도 고목도 있으나 거목은 없다. 소나무 향나무 혼성 숲이다. 잔솔고 드문드문 있으나 밀림은 아니다. 이 사막 산속에 경비행

장도 보인다. 눈이 많이 내금 때는 4m까지도 온다고 한다.

캐니언 입구다. 차에서 내린다.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들던 그랜드캐니언을 굽어보하니. 다만 신기할 따름이다. 너무도 거대한 자연 앞에서 허탈함이 없다.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리라

요세미티 공원에서는 감탄하였다면 여기 캐니언에서는 다기다양한 모습에 신비를 느낀다. 아래로 1700m. 수평으로 16km. 건어다 보이는 네마다주 쪽의 단애는 햇빛을 받아 지층이 서명하다. 지질학 연구의 보고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관심밖의 일이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다. 아득한 계곡 밑바닥으로는 코로라도 강의 상류지점이다. 물이 조금 보인다. 좌우로 펼쳐지고 세로로 이어진 계곡 하류에 아득한 작은 숲 속에는 현재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연방 정부에서 생필품은 보급해 준다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지 않은가. 카메라를 든다. 하지만 렌즈도 한계가 있어 손거울에 전

신을 비추는 격이다. 여러 전망대를 돌아다니며 살펴봐 아도 마땅한 곳은 없다. 풀 한포기 보이지 않는 절벽, 시루떡을 고인 듯 한 지층위로 높이에서도 칼로 자른 듯이 편편한 고원의 정상, 흑인지 바위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높고 낮은 괴벽(怪壁)의 흘립(金立). 공금을 선화하는 독수리, 포롱포롱 가지를 읊겨다니는 새들, 낮은 곳에서 시각까지 달리하니 모든 것이 달리 보인다.

이제는 다리도 철 걸 소나무 그늘에 앉았다. 살펴보니 야생 양귀비로 짐작되는데, 꽃도 망울도 없이 잘려 있다. 아마도 누군가가 잘라 갔겠지?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나 지막하면서도 바위를 깎아 두른 듯한 지층에 미니골프장까지 갖춘 마을이 있는가 하면, 멀리 보이는 구룡지에 산재해있는 집들이 패션처럼 퇴색해 보이는 곳도 있다. 아마도 원주민들이 옛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려는 마지막 의지인지도 모르겠다.

大宗會理事 沈晨求 <끝>

## 독립운동가 沈誠之 ⑪

이튿날 청송의진의 포군 60명은 속곡(東谷)에서 아침을 먹었다. 오전에 부서(府西) 외방장 심의철(沈宜喆)이 친군 10여명을 거느리고 도착하였고, 현(縣) 5면의 면군도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그리고 피란을 떠났던 사람들도 산으로부터 돌아왔다. 오후 금군 김대락(金大洛)과 진무 정진도(鄭鎭燾)를 감은리에 보내 위무하게 하니 한 마을이 모두 불타고 남은 것은 단지 6·7가구뿐이었다. 이천의진과 의성진의 의병 수백명은 안덕 신시장에 주둔하고 있었다. 금군 김대락이 군문집사 박봉의(朴鳳儀)로 하여금 양진을 위무하기 위해 네 동이의 술을 공궤하여 전별하였다. 그후 청송의진은 먼군과 함께 방어책을 논의하였다.

### 6. 청송의진의 성격

1896년 3월 10일(음 1. 27.) 청송군 향회에서 유생 서효원(徐孝源)이 각면으로 발한 효유문(曉諭文)을 보면, 청송의진은 명분론 상으로 유교적인 존왕양이(尊王攘夷)론에 이념을 두고, 국가에 대한 '위국거의(爲國擧義)'와 고을에 대한 '자수지계(自守之計)'를 목표로 하였다.

#### '효유문 내용'

나라를 위해 거의(擧義)함은 당연한 도리인데 이제 차례를 따져서 가리고 피할 겨를이 없이 격서(檄書)와 통장(通章)이 답지하고 있다.

의진에 따르고 거스름은 충신과 역적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니, 틈을 보아 뒤로 물러서는 자는 병법으로 먼저 처단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처지에서 한번도 항회에 참여치 않음은 끝내 짐승의 무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이해로서 말하더라도 우리 고을은 백리나 되는

고을인데, 힘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하면 대략 우리 구획이라도 스스로 지킬 계책이 있을 것인즉, 위로는 대의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아래로는 고을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동의진의 소모장이 그치게 병정을 이끌고 와서 협박하고 강제로 무기교를 수색하며 포정(砲丁)으로 협박 공갈함이 극에 달하였다. 이번 기회에 비록 의진을 설치하고자 하나 텅 비어 행할 수가 없으니, 저들의 욕심은 끝이 없을 것인데, 장차 무엇으로 감당하며 우리를 지킬 것인가. 이어지는 격문은 하나 둘이 아닌데 현 5면에 서는 아직 오는 사람 하나 없으니. 장차 의리를 오랑캐와 같이 보며 또 윤리와 강상(綱常)을 오랑캐에 맡기자는 것인가. 우리 고을의 존망은 이 두 가지에 달려 있고, 인수(人獸)의 분별은 이 거사에 달려 있으니, 엿드려 바라옵건대 그대들은 밤을 달려 함께 자리하여 일을 도모하기 바란다.

위의 효유문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송의진은 나라와 고을을 수호하지는 두 가지 목표로 창의하였다. 전자는 관제개혁과 변복령·을미사변·단발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에 직면하여 의리를 지켜 윤리와 강상을 회복하지는 근왕주의적 충군(忠君) 논리에 입각한 것이었고, 후자는 안동의진의 소모장 유사연의 횡포에 대해 청송지역 양반유생들은 자존심을 환기하여 고을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청송의진은 국가에 대한 '위국거의(爲國擧義)'와 고을에 대한 '자수지계(自守之計)'를 목표로 창의하였다는 점에서 春秋大義論에 입각한 근왕주의적 의병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창의장 沈誠之도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마음이 똑같다(天理人心之所同然)'는 관점으로 춘추대의론(春秋大義論)에 입각하여 창의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 8도 학생 물려드는 "전북 산골학교"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산중학교-

"물 건너외국도 가는데 우리 물에 못갠수평"

제주도에서 바다를 건너 전북 산골까지 찾아온 이슬기(13)양. 올 봄 완주군 화산면 화산중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뱃길도 멀다 하지 않았다. 전주시내에서 자동차로 40분을 달려야 도착하는 이 시골 학교에는 제주, 강릉, 부산, 서울 등 전국 8도(道)에서 물려든 학생 243명이 다니고 있다. 5년전만 해도 학생수가 56명에 불과해 폐교 대상 "1 순위"에 올랐었다.

1963년 설립돼 5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화산면을 지켜왔지만 농촌에 불어닥친 인구 감소와 저출산의 여파를 이길 수 없었다. 학교 설립자인 심의두(沈宜斗 71) 교장은 "학교 문을 닫는다니 내 인생을 닫는 것보다 싫었다"며 "산골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악점이 된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심교장은 학생 모집 단위를 "전국구" 규모로 확대하고 원어민 영어강사와 박사급 교사를 모집해 학교에 상주토록 했다.

2001년에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한 교실에 학생수가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국에서 신입생을 데려오기 위해 2003년 현대식으로 기숙사 "문무숙"을 지었는데 이어 지난해 제2중 설립을 마무리 지으면서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잔디가 깔린 운동장을 2바퀴씩 의무적으로 돌아야 하고, 토요일에는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산을 찾아태권도 등을 연마한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올 봄학기에는 100명을 뽑는 신입생 모집에 1천명이 몰렸었다. 여느 학교와 달리 1차 전형에서 필가가 아닌 면접 시험을 치러 80%를 걸러냈다. 면접에서는 부모와 멀리 떨어져 학교에 다닐 의지가 확고한지, 건강 상태는 좋은지, 유학을 위해 훌쩍 그만두지는 않을지 등을 묻는다.

심 교장은 "한번 입학한 학생은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치기 위해 면접을 중점적으로 본다"며 "폐교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은 학교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을 하루 앞둔 14일 화산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숙사를 잠시 떠났다 전북 산골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 青松沈氏安孝公派宗會 任員名單

二〇〇六年五月三十一日選任

元老 成澤載鴻 現澤宜亨 奭鎮元燮 甲輔熙熙

顧問 魚澤應斌

會長 斗燮

副會長 永澤庚周 相龍

運營委員 光澤萬鎮 行鎮相八 相德彦浩 相穆(수원) 明玉敏玉寬錫

監事 鳳鎮文秀茂燮

總務理事 相稷

財務理事 相龍

管理理事 相億

墓下管理理事 彦村應植權裕

理事 相文讚秀 宜杓載春 容圭彦容

種福(인천) 在安相直 光燮載球 相國

(수원) 相哲載玉 相燮彦廷 彦澤相元

周燮相益相武 彦植應鎮舜鎮 相草

相讚彦成彦契 相昇玉鎮英燮 相雨相福

(화성) 國鎮(군포) 揆逸(평택) 文鎮

(과천) 應璋(김포) 康燮 相達昌燮

允輔學燮 相弘炯燦(성남) 相甲載烈

(일산) 文錫(용인) 寬鎮 永周星澤 彦昌

相浩景燮 相穆載益(안성) 振裕俊澤

相旭錫圭政燮(과주) 忠澤仁燮 海燮

(화성) 相鳳相鶴(여주) 平來(춘천) 相穆

仁燮(원주) 正輔相烈(대전) 宜哲應斗

載榮奉燮 連輔星輔 玄根(청주) 載龍

相昊成輔(충주) 中鎮成來 興來

(예산) 承澤(아산) 彦昇仲根(진주)

在(주) 相燮 榮燮(光州) 堯燮鍾澤 勝燮

憲燮(익산) 相睦相泳相國 塔燮仁求

### 청 송심 씨 정보

4 제60호 2006년 7월 20일

## 논단

### ■혈구지도(繫矩之道)와 충서(忠恕)■



대종회 이사  
沈 星 求

孔子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엄숙하고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으시고  
공손하면서도 편안하셨다.

이 말에서 공자의 인격을 묘사한  
문장으로 두 가지 대립적인 요소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룬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다. 주자

는 이 구절을 '오직 성인만이 전체가  
혼연하여 음양이 덕을 합하고 있기 때문에  
중화의 기운이 용모사이에 나타남이 이와  
같다.' 라고 주석하여 온화함과 엄숙함,  
위험과 사납지 않음, 공손함과 편안함을  
陰, 陽'으로 규정하고 이 대응 항들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中和'로 보고 있다.  
즉 '金'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지나침  
(過)'과 '모자람(不及)', 음과 양이라는  
외면(外邊)과의 관계성에 의하여  
정립된다는 것이다. 『中庸』장에  
명시한 구절을 보기로 한다. 순은 위대한  
지혜를 가진 분이실 것이다. 순은  
문기를 좋아하며 친근한 말로 살피기를  
좋아하시며 악은 숨기고 선은 들어내시며  
그 양단을 잡아 백성에게 그 손을  
쓰시니 그것이 순(舜)이 된 이유이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양단(兩端)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여론을 말한다.  
주자가 '그 양단을 잡아 헤어져서  
금을 취한 뒤에 쓴다.' 한 바와 같이  
금은 두 개의 대립에 의하여 정립되는  
것이다.

중이란陰과陽이라는 대응관계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어느 한쪽의 세력이 지나치게 크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관계 그 자체인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論語』『述而』편에서  
공자의 인격을 묘사한 문장에서 두 덕목의  
균금 잡힌 관계성 그 자체가 금으로  
된다. 공자의 인격을 '온이려(溫而厲)'라고  
표현했을 때 예를 들면 온화함과 엄격함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룬 상태로써 그 자체가 바로 금용의 덕인  
것이다.

이와 같은 균금성이야말로 인간세계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근본질서로서 규범의  
이상으로 보는 것이 유기뿐만이

아니라 金국 고대사상가의 원초적 관념이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적 자연질서의 세계로  
들어가 現代科學이 밝히는 化學에서의 中和의  
의미는 어떠한가 살펴 보기로 한다. 化學에서  
中和(Neutralization)란 산(酸)과 염기(鹽基)가  
당량(當量)씩 반응하여 산 및 염기로서의  
성질을 잃은 현상이다. 이처럼 성질이  
정반대인 대립적 물질도 서로 합해지면  
작용하여 반응이 일어나고 두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변하여 中性이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이 '소금'이다.  
이러한 반응으로 일어난 작용을 中和라고  
하고 있다. 산성인 염산과 알칼리성인  
가성소다를 음과 양의 두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응 항의 均金성 자체가  
'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金'의 均金을  
갖춘當量이 합하여 작용함으로써  
만들어진 中性 상태가 '中和'이다.

儒學에서의 中和는 가치영역의 분이라고  
한다면 化學에서의 中和는 사실영역의  
분이라고 分類할 수 있다. 前者는 心性에서,  
後者는 物性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하는 상징성은 同一한 것이다.  
『周易』에서 표현하는 상징성은 이 두  
분야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周易』의 澤山咸卦에서는 金  
국이 서로 다른 두卦가 서로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상징하는 卦(卦)  
이다라 한다. 『中庸』에서 말하는 心性의  
中和나 化學에서의 中和는 의미하는 바는  
모두『周易』의 咸卦에서의 造化성과  
상징하는 바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天地萬物의 造化로움은 天道로서  
하나이며 아무리 정반대의 극과 극이  
만나고 아주 다른 정반대의 것이 만나  
더라도 그 造化로움에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이 天命에 따라 산다면 이념이  
반대인 다른 사람과 만날지라도  
造化로움에서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이 준 本性이고 이를  
좃아 사는 것이 道인 동시에 도덕적인  
당위성을 띠고 있는 규범이다.

그러므로『周易』에서 中和를 지극히  
하면 天地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萬物이 잘 生育될 것이다. 주자는 주역의  
설명에서 '天地와 萬物'이 본래 나와  
一體이며, 나의 마음이 바르면 天地의  
마음이 또한 바르고, 나의 기운이  
순하면 天地의 기운이 또한 순하다고  
했다. 天地와 萬物과 내 마음이  
一體가 되어 내 마음이 바르게 되고  
기운이 순하면 천지의 마음과 기운도  
순하게 되는 것이니 天地人의 harmonious  
함이 같게 되는 것이다. <글>

### 沈영감 심민섭

새집 증후군...  
새가구 증후군...  
저양반은 왜 저래?  
새마누라 증후군...

### '曾祖父는 獨島' 지키고 '後孫들도 바다' 지키고

1906년 심흥택 울릉군수 日독도조사관 꾸짖어



해군 심재봉 중령과 아들 세진씨

일본 순시선의 독도 해역  
침범 소식이 들려올 때 100  
년 전에 찍은 낡은 사진을 들  
여다보며 호국(護國)의지를  
다지는 해군이 있다. 해군 복  
지군무지원단 기획운영처장  
심재봉(심재봉 47세 해사37  
기) 중령이다. 그의 증조부는  
1906년 3월 28일 갑자기 나  
타난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관리들과 만나그들을 준열히 꾸짖은 '독도수호신' 심  
흥택(沈興澤) 울릉군수이다. 당시 시마네현 진자이(神  
西) 사무관 등 10여명은 배를 타고 울릉도 관아를 찾  
아왔다. 바로 전해(1905년 2월)에 독도를 시마네현 영  
토로 비밀리에 편입한 일본이 독도조사단 명목으로 독  
도를 다녀온 뒤 울릉도에 들른 것이었다. 심 군수는 조

정에 '본군(本郡) 소속 독도에 대해 일본 관원 일행이  
찾아와 독도가 일본의 땅이 됐으므로 시찰차 왔다고  
말했다.'는 긴급 보고를 올렸다. 심 군수의 보고로 金  
양정부에선 일본인들의 동태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  
려졌고 황성신문 등에는 이에 항의하는 기사가 대대적  
으로 실렸다.

심 군수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 일본관리들의 기  
념 촬영 요구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시위하듯  
대금태극기를 내걸고 사진촬영에 응했다.

심재봉 해군중령. 만이들 '독도를 꼭 지켜야죠'  
심중령은 어순 적부터 증조부의 이야기에 감화받아  
해사에 진학했다. 아내 원영희(46)씨는 3년 전 예편한  
해군중령(해군해양의료원 가호부장) 출신이고 큰이들  
세진(23)씨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해군에 입대했다.  
심 중령은 최근 울릉도 독도방어를 맡고있는 해사동  
기생에게도 전화를 걸어 '증조 할아버지의 혼이 서린  
독도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심 중령은 '올해가 마침 증조 할아버지가 독도라는  
명칭을 공식문서에 사용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로  
지난 달에 심포지엄도 열렸었다며 독도를 지키려고한  
선조들의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송금안내 ●

찬조금 또는 홍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 농협 084-12-055823  
(울지로4가지점) 대종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 홍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 회계로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 송심 씨 대종회  
전화: (02)2267-7857

### ● 청송시조묘소 연락처 ●

유사 원택 011-9355-3608  
상국 011-554-1313

# 강좌

## ■심갑보(三益 THK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

### 반대의견도 수용하라



부회장 심갑보

있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 구속이 되었을 때(지난 4월 중순) 한 일간지 사회면에?누군가 NO라고 할 수 있었더라면...?이라는 제하의 기획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기사차 전(前)임원 B씨는?잘 못된 결정이라도 감히 정 회장에 게 NO!라고 말하지 못했다?며 그 대신 정 회장의 결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려는 게 있대자동차의 정서라고 말했다. 있대자동차 급성장의 원동력은 그가 직접 강조한 품질경영과 현장경영에 있었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이 철저한 있대차의 기업문화에서 정 회장의 의지는 곧 그룹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졌고 그룹이 잘 나갈 때는 높은 효율성을 발휘했다. 하지만 위기에 빠지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있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 구속이 되었을 때(지난 4월 중순) 한 일간지 사회면에?누군가 NO라고 할 수 있었더라면...?이라는 제하의 기획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기사차 전(前)임원 B씨는?잘 못된 결정이라도 감히 정 회장에 게 NO!라고 말하지 못했다?며 그 대신 정 회장의 결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려는 게 있대자동차의 정서라고 말했다. 있대자동차 급성장의 원동력은 그가 직접 강조한 품질경영과 현장경영에 있었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이 철저한 있대차의 기업문화에서 정 회장의 의지는 곧 그룹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졌고 그룹이 잘 나갈 때는 높은 효율성을 발휘했다. 하지만 위기에 빠지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회장의 경우와 대조되는 사례들도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100% 찬성으로 추진되는 일은 없다. 만약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위험한 일이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90%가 반대하고 10%가 찬성할 경우 찬성하는 이가 10%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완자가 90% 있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 사장 역시 내 사무실에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한다.'고 역시 반대의견을 장려하고 있다. '하버드대 마이클 로베르트 교수는 NO라고 할 줄 모르는 커뮤니케이션 결여, 이견(異見)의 부재, 특히 최고경영자 앞에서 다른 의견이 개진되지 못하는 것이 일등기업의 문제라고 했다. 윈스턴 처칠은 비판은 대개 유용하지만 칭찬은 기만적이다.'라고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영탁 씨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 인용). 세종대왕이 1446년 9월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2년 전인 1444년(세종 26년)에 당시 집권층 부제학으로 있던 최만리(崔萬理)가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반대소리를 올렸다. 이에 즉각 최만리가 구속되었는데 세종대왕은 3일만에 석방하고 말했다. 이때 석방하면 안 된다는 신하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에 세종대왕은 '최만리가 비록 반대는 했어도 그가 올린 상소문은 논리가 정연하고 거기 담긴 얘기가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감옥에 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신하들을 설득하고 풀어주었다고 한다. 반대의 논리를 수용한 위대한 결단이었다. 이런 결단은 어떤 군왕도 감히 할 수 없는 일

이었다. 북한의 산하가 황폐해진 이유는 김일성의 산지개발 정책에 아무도 반대를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 전 국토의 80%가 산지인 북한이 식량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구실로 산지들을 개간하여 경작지를 늘리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여름철에 집중되는 비(雨)가 개간한 산지의 토사를 씻겨 내려가게 해 강(江)의 하상(河)을 높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비가 조금만 와도 강이 넘쳐 홍수가 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한다. 회사 CEO의 경우에도 자기에게 반대하는 직원을 멀리하고, 자기 의견에 무조건 맹종하는 부하들을 선호하는 CEO가 있는가 하면 상사의 단점을 편안하게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부하의 좋은 건의를 수용할 줄 아는 CEO가 있다. 전자를 독재형 CEO 또는 보스(BOSS)라 한다면 후자를 민주형 CEO 또는 지도자라고 말한다. 지도자는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한다. 지도자는 자기의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회사의 간부회의나 임원회의에서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표시하고 잘못된 방침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부하직원들은 입을 닫고 만다. 따라서 있대자동차 정 회장의 구속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업무추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반대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결점을 보완해 나가야 성공확률이 보다 높아지고 회사 경영도 활력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끝> 심갑보 삼익THK(株) 대표이사 부회장

## 護國 報勳의 달을 맞아

### 沈南一將軍(휘: 沈守澤) 墓所에 참배하다.

2006년 6월 29일. 어제 비가나린 탓인가 오늘 아침엔 10시가 지나서도 낮게 깔린 안개가 아직도 견질줄을 모른다. 날씨는 쾌청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예정대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았다. 정문을 지나 한참을 걸어 우람하게 치솟



은 있충문을 통과하여 있충담에 이르렀다. 이곳은 聖地답게 고요하고 정숙한데 먼저 분향을 하고 이곳에 모셔진 16만여의 英靈앞에 고개 숙여 명복을 빌었다. 그곳을 나와 우측 언덕길로 접어들어 양쪽으로 모셔진 愛國志士 殉國先烈戰歿將兵의 墓所가 끝없이 줄지어 서있다. 그 엄청난 규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지난날 어렵고 어수선했던 시절이 머리속에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듯 벅차오르는 감회를 느낀다. 이곳의 묘소들은 구역으로 나뉘어 地域에 따라 번호가 정해져있다. 위로 한참을 올라가 다다른 곳은 12번 과 13번 지역 중간에 있는 殉國先烈的 묘역이다. 先烈들은 내가 가고있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아셨기에 가야만 했던 그 길, 그 끝자락에서 퍼런 갈밭을 맨몸으로 막아야 했던 그곳. 그 많은 선열들의 혼백이 지금 이곳에 잠들어 계시다. 좌측 두번째 줄의 8번, 「순국선열 심수택」이라 쓰여진 碑 하나가 세워져 있고 옆줄에는 「배위 임사오 합장」이라 쓰여져있다. 산소마다에는 작으나한 꽃단지 하나씩 놓여있고 그 꽃단지 안에는 노랑 빨간 등 색색의 국화꽃이 담복 담겨있어 성지로의 그肅한 정서를 더해준다. 碑身아래 좌대에는 아래와 같은 글구가 새겨져있다.

前略 "祖國江山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젊은 세월을 민족의 제단앞에 바친 당신 ——" 中略 "어둡고 답답한 겨레

의 질곡을 목도하면서 수천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신 당신은 ——" 下略

그렇게 승고한 뜻을 품고 겨레 앞에 우뚝 서셨으니 진정 당신은 장하신 분이 십니다. 石 위에는 방금 누가 다녀간 듯 화환 꾸러미 하나가 놓여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온 향으로 분향을 하고 있작(獻爵:잔을 올림)을 한 다음 再拜를 올렸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잠시 부복을 하고 명복을 빌었다. 그곳을 나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장군묘역 제2지역이 있다. 沈興善大將은 우리 沈門에서는 처음으로 大將에 오르고 合參議長으로 예편하시어 總務處長官을 역임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沈興善大將은 53세에 沈彥奉中將은 33세 라는 젊은 나이에 早世하시어 九萬里長天에 큰일을 다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애석하기만 하다. 우리는 분향과 있작을 하고 제배를 올렸다. 묘역 외곽 길로 들어 朴正熙前大統領의 内外分 墓所와 李承晩 前大統領의 묘소를 지나 위패 봉안관(位牌 奉安館)에 이르렀다. 봉안관 안으로 들어서니 左右벽에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있는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이 위패명단은 實體가 없어 安葬하지 못하고 계급 성명만으로 위패를 모신 분들로써, 이곳에 奉安된 위패만 해도 104,000여 位나 되고 無名勇士 6,700位를 합쳐 110,700여 명이며 安葬되어있는 54,000여 位의 분묘를 합산하면 동작동 국립묘지 한 곳에만 160,000여 位가 되니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재난이 아닐 수 없다. 6.25 사변 당시 戰死, 傷者는 戰死者(실종자, 포로 포함) 170,737位를 합쳐 621,479명이고 參戰 16개국中 제일 많은 戰死, 傷者를 낸 미군의 死傷者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國名	戰死者	실종	포로	부상자	계
韓國	137,899	24,495	8,343	450,742	621,479명
美國	36,940	3,737	4,439	92,134	137,250명
16개국	3,740	379	1,376	12,146	17,631명
合計	178,569	28,611	14,158	555,022	776,360명

위와 같이 776,000여 명의 큰 희생자를 내고야 전쟁의 끝을 보았으니 어찌 그 많은 영영앞에 어찌한들 위안이 되겠는가. 그 중에도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를 日帝의 압제(壓制)에서 풀어 주었고 6.25의 구렁에서 구해 주었으니 우리는 100년을 가도 그 은공은 갚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미군은 물러가라 하고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하니 벌써 올챙이 적 시절을 잊었던 말인가 '만약

에 참전국 사람들이 지금의 이 환경을 볼 수 있었다면 그 많은 젊은이 들이 피를 흘려가며 이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민을 위해 싸우기는 했을까? 코리아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던 이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고 목숨을 바친 그 고귀한 희생 앞에 우리는 어찌 사죄를 해야하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외이는 듯 아프고 사무치는데. —— 돌아서 나오는 길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 그 수많은 묘소들의 위풍(威風)이 가슴속 깊이 숙연해 집니다. 생각해 보니 앞날의 우리 국민의 운명은 지금 살고 있는 이 국민들의 몫이거늘 ——,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 행태를 바라보면 한치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우니 어찌하랴!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

2006년 6월 29일 - 38 -

## 서울 國立墓地 探訪

### 殉國先烈 沈守澤 墓碑文

수천년을 이어온 조국강산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젊은 세월을 민족의 제단앞에 바친 당신의 깊은 뜻은 역사의 거대한 강을 따라 손자로 손자로 그렇게 이어질것입니다. 어둡고 답답한 겨레의 질곡을 목도하면서 수천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신 당신은 퍼렇게 멎든 피는 푸르고 푸르러 천년을 가리라 며 비문의 뜻을 표하셨으니 이제 후손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한겨레를 지키는 거룩한 신화가 되리라.

### 陸軍大將 沈興善 墓碑文

故 沈興善大將은 1925년 1월 18일 개성에서 出生 6·25 動亂中에는 砲兵指揮官으로서 赫赫(赫赫)한 戰功을 세우셨고 合參議長으로 豫編하기까지 數多한 軍 要職을 역임하면서 國家安全保障에 크게 貢獻(공헌)하였으며 총무처長官으로 入閣하여 조국변영과 國력신장에 多大한 業績을 남기시고 1978년 9월 19일 享年 53세를 一期로 逝去(서거)하였습니다. 언제나 溫和한 미소를 잊지 않으시던 장군의 高邁(고매)한 인격과 爲國衷情(위국충정)은 우리 軍의 龜(귀감)이며 祖國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을 확신하면서 장군의 冥福을 祈願(기도)하오니 길이 安息하시고 永生(永生)하시어 1978년 10월 友人代表 陸軍大將 李世鎬

## 청송심씨종보

6 제60호 2006년 7월 20일



심'suik 대종회이사



제1집 : 섬은 바다에 누워  
제2집 : 미완성 풍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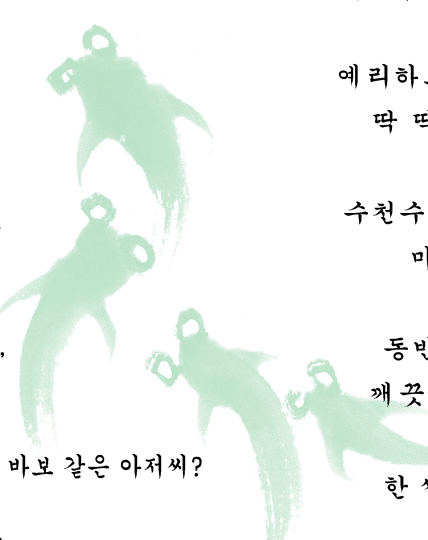
### 인사동 엘레지

어느 일요일 오후 인사동 너거리  
인파는 만파를 이루었다  
비좁은 골목마다 진열된 골동품 상점  
옛 정취 물씬 풍겨왔다

수증발레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연인들의 속삭임  
흐르는 선율에 가슴일렁이고.  
앞에서 마주오던 젊은 한 여인  
비틀거리며 당돌하게 말했다..

존경하는 아저씨 오래 만입니다  
한번 만나주지 않고 왜 회피 합니까  
온 몸을 뒤흔며 손을 잡으려 했다.  
뿌리치는 일행에게 왕벌 같은 소리로  
아저씨 숙맥 같은 남자가 보다,  
그렇지 내 말이 맞지?

난 순진한 여있이란 말이야 이 바보 같은 아저씨?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길을 막고 서서 말에 말 꼬리를 물고  
달려드는 그녀의 추상같은 호령에  
우린 진짜 '숙맥 같은 사람' 되었다.



### 보금자리 만들어 놓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부리  
딱 딱 딱, 딱 딱 딱

수천수만 번 쪼고 쪼아내어  
마련한 등지하나

동반할 배필 찾으려고  
깨끗이 다듬은 보금자리  
단 꿈에 빠진  
한 쌍의 딱따구리처럼

깊은 사랑 이루어  
희망찬 새 삶을 열어가렴.

### 發明大王賞 銀塔産業勳章 수상

심재성 삼성전자(주) AV사업부 수석연구원

심재성씨는 金浦市 大串面 藥岩里 居住沈吉燮씨의 次男으로 지난5월19일 제4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 60여명 金 最高의 賞인 발명대왕상과 은탑산업훈장을 2개의 수상을 하였다.

#### 發明大王賞

光應用 기기의 핵심부품을 독자적으로 開發하여 特許化하고, 國產화함으로써 數兆원의 매출과 수천만 불의 로열티 수입을 창출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공헌

삼성전자 디지털 AV사업부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심재성(43세)씨는 光디스크 특허제조기로 통하며, 최근 5년 동안 光디스크분야에서 國內의 478件的 특허를 출원해 이 가운데 152件이 등록됐다고 하는데 이수치는 웬만한 金소기업 1개사 전체특허실적과 맞먹는 것이며, 그 기술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니 그앞날이 촉망되는바이다.

### 祝

제 41회 발명의 날 수상  
삼화이오씨알(주) 이사 심재규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 祝

### 當選

2006년 5월 31일  
基礎團體長  
郡守: 심의조 합천군수  
廣域議會議員

영 등 포: 沈勇鎭  
광 명 시: 沈준식  
대 덕 구: 심준홍  
연 천 군: 심진택  
태 백 시: 심대영  
충 주 시: 심홍섭  
전 주 시: 심영배  
송 파 구: 沈彦都  
서 울 중 구: 심상문

### 대동세보 수권속편(의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약 1,200P	50,000원	(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약 600P	30,000원	( )권
3. 종보축쇄판(1-50회)	-약 400P	20,000원	( )권
4. 제향출기(휴대용)	-약 30P	3,000원	( )권
5. 종사수첩(휴대용)	-약 140P	3,000원	( )권
6. 뱃 지		1,000원	( )개

▶ 1, 2, 3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파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이 름		우편번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 )은행( )지점

#### ❖ 기재요령

1. 파명은 봉익공파, 약은공, 도총제공, 판사공, 지성주사공, 인수부윤공, 안효공, 동지 총제공으로 구분
2.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3. 송금인이 본인이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명을 기재하고, 송금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
4. 송금한 은행과 지점명을 기재

#### ❖ 공지사항

1. 수권속편 신청금은 대동세보 관리통장 [농협 084-01-179814 심명구]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수권속편 대금을 입금하신 분은 반드시 대종회에 신청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3. 수권속편이 5월 10일자로 발간되어 신청즉시 발송하고 있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 질단위 外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산경회관) 청송심씨대종회  
우편번호 100-310  
TEL: 02)2267-7857, 2263-7897  
FAX: 02)2269-7755

# 宗 事 消 息

## 五世祖 安孝公 端午祭

5월 31일



初獻: 斗燮(안효공종회장) 亞獻: 相泳(익산)  
終獻: 成輔(청주) 大祝: 光澤(안성)  
執禮: 相稷(안효공종회총무)  
執事: 載澈(서울) 應植(수원) 彦村(수원)

## 青松沈氏 安孝公宗會 定期總會

5월 31일



宗會員 300여명 참여

## 六世祖 恭肅公 妣位 忌辰祭

6월 5일(음 5월 10일)



初獻: 弘澤 亞獻: 洪燮  
終獻: 海燮 大祝: 養燮  
執事: 載澈(서울)

## 舍人公派 臨時總會

6월 31일



명륜웨딩홀(전통의례실)

## 青松宗會 定期總會

6월 22일



청송읍 율막리 잔경루

## 獨島가 우리 땅이라는 확실한 증거

沈 璉 求

1. 한국은 서기 512년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한 이래 전통적으로 독도를 통치해 왔다.
2. 한국 정부는 1476-1905년의 기간 중 조사단 파견, 행정권 확립 등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실효적 관리를 해왔다.
3. 1900년 고종황제가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군의 부속도서로 강원도에 공식으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4.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령에 편입할 때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한국령의 일부였다. (1906년 3월 당시 울릉군의 군수 심금택 보고서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
5. 1904-1945년 사이에 발견된 일본측의 상당수의 문헌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이 기간에 일본해군이 만든 지도에도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음)
6. 1905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할 때에도 국가 공시가 아닌 시마네현(島根縣) 공시 40호에 의하였다.
7. 2차 대전 후 전승국을 대표한 연합국 사령부(SCAP)와 일본간에 체결된 강화문서 金(SCAPIN NO.677)에 「패전한 일본 제국은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8. 일본은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의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나 한국은 세종 이후 부단한 역사기록 속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
9. 독도에는 어부 최종덕씨가 그곳 주민등록을 하여 살아오다가 그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의 사위인 조준구씨 내외와 두 자녀가 독도주민으로 현재 살고 있다.
10.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새로운 증거  
[연합국 영토처리 합의서에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서울대 신용하 교수가 입수 공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국제문서와 지도가 최초로 공개됐다. 서울대 신용하 교수가 최근 미국 고문서관에서 입수한 문서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와 이 문서에 첨부된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이 반환해야 할 한국 영토임을 적시하고 있다. 총 5개항으로 구성된 이 문서의 제3항에는 "연합국은 한국에 한반도와 그 주변 섬들의 주권을 이양하기로 합의 했는데, 그 섬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당시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이며, 앞으로 독도 논쟁에서 일본의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된다.  
신교수는 "1974년 미국과 유럽 등 연합국이 구 일본 영토 처리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이 문서는 대일 강화 조약인 샌프란시스코조약(1951년)의 근간"이라며 "이 조약의 본문에 독도가 빠져 있다는 이유로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역지를 부러운 일본에 타격을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 '울트라맨' 심재덕씨(37세 대우조선해양) 美산악마라톤 우승

심씨는 지난 13일 미국 버지니아주 프린트 로열에서 세계전각 159명이 참가한 '제12회 MMT 160km 산악마라톤대회'에서 17시간40분45초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다. 300m ~ 900m의 산봉우리를 넘어야 하는 대회에서 심씨는 초반부터 우승후보인 미국출신인 칼 멜츠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특유의 지구력을 바탕으로 뒷심을 발휘하여 18분 차이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 가입회원 일천명 육박하는 '청송심씨 인터넷종친회'

청송심씨인터넷종친회(회장 심충섭)는 지난 2000년 10월에 MSN사이트에서 모습을 드러낸 후, 대중회 소식을 비롯하여 과 중회소식, 지역 중회소식, 그리고 족보 등 뿌리에 대한 질의응답을 게재하고, 빛나는 우리 기문과 조상님들의 발자취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인터넷 속에서 우리 일가분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해 왔다.

충섭(대중회 이사) 인터넷종친회 회장은 <청송심씨인터넷종친회>가 사이버 공간에서 일천여명에 이르는 큰 모임이 되기까지에는 대중회와 일가분들의 도움이 컸다>고 회고하면서, <이제는 대중회 홈페이지와 더불어 청송 심씨의 큰 사랑방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컴퓨터에서 '청송심씨인터넷종친회'를 찾으려면 인터넷검색 사이트인 '야후'나 '네이버' '엠펙스' 주소창에서 한글로 '청송심씨인터넷종친회'라고 검색하면 바로가기 인터넷 주소가 검색되어 나온다.

청송심씨인터넷종친회 주소(URL) : <http://groups.msn.com/ChungSongShim>

### 青松沈氏인터넷宗親會 任員名單

- 會 長: 忠燮
- 副會長: 惠剛 載一
- 總 務: 載珉
- 監 事: 賢貞
- 理 事: 載輪 相淑 文輔 宣輔(천안) 宣輔(성남) 采闇 秀輔
- 會 員: 881名(2006.7.7.現在/ 계속가입중)

청송심씨종보

8 제60호 2006년 7월 20일



長山 沈弘輔 招待作家

大韓民國書藝大殿 招待作家 選定

顏氏家訓

夫有人民而後 有夫婦 有夫婦而後 有父子 有父子而後 有兄弟 一家之親 此三者而已矣 自茲以往 至于九族 皆本於三親焉 故於人倫 爲重者也 不可不篤

-번역문-

사람이 있는 후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는 후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는 후에 형제가 있느니라. 한 집의 친한 것은 이 세 가지뿐이니라. 이것으로써 구족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가 근본이 되므로 사람이 지켜야 할 인륜의 도리에 중요한 일이 되나니 가히 신중히 아니하지 못하리라.

사조모(思祖母)

시조시인 沈成輔 작  
부경대학교수 공학박사

두 볼에 넉넉한 홍시(紅?)  
받고랑에 떨어질 때

호미 놓고 닦아주신  
적삼 흙이 따듯했네

석양(夕陽)에 돌아보는 불망(不忘)  
선산(先山)은 산 평만 들고

人事

- 심일선: 산재의료관리원 감사
- 沈東燮: 산업자원부 시장개소 팀장
- 沈成根: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 팀장
- 심연준: 경향신문 사옥개발추진본부 부분부장
- 심재련: 국세청 서초세무서장
- 심기숙: 국세청 인천세무서장
- 심상희: 국세청 마산세무서장
- 沈宰滿: 삼성증권 기업금융 3파트
- 沈平康: 소방방배청 소방정책본부 U119팀장
- 심종혁: 서강대 기획처장
- 심 호: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제 제6과장
- 심금수: 한국수출입은행 프랑푸르트 사무소장
- 沈愚萬: 시업은행 포천지점장
- 沈星台: 국민은행 마케팅부장
- 심상인: 충북지방경찰청 음성서장
- 沈成太: 해양수산부 안전관리해사기술담당관실
- 심병구: LG카드 금부채권지원 팀장



5년 전 '죽음의 강'이 지금은 '생태하천'으로  
“아들에 먹 감던 추억물려줘야죠.” 19년째 자원봉사심상국씨

“태화강에서 먹 감던 추억을 아들(당시 18세)한테도 물려줘야겠다 싶었어요.” 1987년8월 홍수로 태화교 교각에 걸린 쓰레기를 걷어내며 태화강 정화운동의 깃발을 든 심상국(60 울산시 신정동 사진)씨. 그는 이때 자신이 경영하는 金소조산업체(미도선박 종업원 70여 명)에서 가져온 3t짜리 보트로 태화강 물속 청소 매달린 이래 지금까지 19년째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는 아예 월~토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부인 김순이(56)씨와 함께 태화강으로 출퇴근하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수금 쓰레기와 씨름하고 있다. 그동안 심씨가 태화강·회야댐에서 걷어올린 쓰레기양은 5t트럭으로 1000대가 훨씬 넘을 것 이란 게 울산시 관계자의 얘기다.  
그동안 20억원에 가까운 사재도 털어 넣었다. 태화강 유일의 청소전용선(12t·1대)·트럭(1대)·포클레인(임차) 운영비와 하루 2~4명의 인부일당, 자원봉사자 밥값 등으로 썼다.  
2000년부터는 울산시에서 연간500만원~3000만원씩 자원봉사자 지원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謹弔

沈相弼 前大宗會總務

沈相弼公께서는 지난5월 31日 仁川所在 仁荷大學病院에서 宿患으로 下世하셨습니다.  
公은 1971年 大宗會를 創立할 當時 43세의 젊은 나이로 初代總務를 맡으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으나 1976年 一身上의 사정으로 잠시宗會를 떠났다가 1981年에 다시 복귀하여 임무를 마치시던 1998年 4月 까지 무려 24年을 한결같이 宗事를 위하여 在任하신 분이십니다.

그간에 업무추진상황을 살펴보면

- 첫째: 五處山所의 時享奉行 및 林野位土等을 살피어 管理하고
- 둘째: 全國의 各 地域宗會나 派宗會가 成長하도록 후원하는데 기여하였으며
- 셋째: 우리 靑松沈氏大宗會의 宿願事業이었던 會館(讀慶會館)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 넷째: 靑松沈氏門中과 관련된 文獻들을 발굴 일목요원 하게 편집하여 출판하는 등 우리문금을 위하여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公은 또 儒敎思想에 심취하여 鄉校등에 관련된 사업에도 많은 공헌을 하시었고 牛渚書院(金浦所在. 趙憲先生의 사당: 임진왜란 당시 義兵將으로 700名의 義兵과 함께 격전을 벌였으나 勝戰하지 못하고 1592年 錦山戰鬪에서 全員 殉國함 '칠백의충' 壬辰 四忠臣中의 하나)의 院長職을 10餘年間 수행하면서 매년 時享奉行에 정성을 기울이시고, 會館을 구입하는 등 그외에도 一生을 經營하는데 커다란 足蹟을 남기시었다.

公은 1998년도에 大宗會를 퇴임하신 후 2004年경부터 지병으로 많은 苦生을 하시다가 끝내 回生지 못하고 下世하시니 享年 78세시다. 眞心으로 公의 명복을 빕니다.

대중회 문화이사 - 38 -

訃告

沈相弼(前大宗會總務)別世  
2006년 5월 31일  
嗣子: 承燮 重燮 翰燮

沈應燮(前安孝公宗會會長)別世  
2006년 6월 17일  
嗣子: 載玉 載仁 載英

舍人公派臨時總會

- 獻誠金 -

一用	500,000	安城
相旭	300,000	安城
貞澤	100,000	安城
相德	100,000	安城
光澤	100,000	安城
震燮	50,000	安城
永澤	2,100,000	舍人公派宗會長
斗燮	50,000	서울 시흥동
高尺宗會	50,000	鎭川
金燮	50,000	金浦 하성
昌燮	50,000	金浦 당곡
百燮	50,000	쌍문동
種福	50,000	대중회
允輔	30,000	金浦
平來	20,000	驪州

沈昌燮(前判官公宗會長)

2006년 4월 舍人公派宗會 臨時理事會 개최시, 개인적으로 食代費用 280,000원을 支出함으로서 모든종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사의를 표하였다. (김포 당곡식당)

성금감사합니다

- 宗報誠金 -

安孝公宗會	500,000	
吉燮	100,000	金浦 약산
載文	100,000	晉州 진성면
상익	50,000	서울 봉천동
元燮	30,000	金浦 약산
固城宗親會	100,000	
원보	30,000	서울 답십리
淸澤	20,000	春川
鍾默	30,000	群山 월명동
재연	70,000	安山
西서울宗會	110,000	
장관	10,000	光明 소하동
璉求	50,000	仁川 관교동
상호	50,000	井邑
경보	30,000	水原
正植	50,000	구리 교문리
재욱	30,000	東大門區

증보59호訂正

명섭 100,000원 신당동을, 행당동으로 정정함.

理事會費

晟求	50,000	2006	春川 석사동
載烈	50,000	2006	大宗會
載德	100,000	2005~6	釜山 괴정동
宜洛	300,000	2006	大宗會副會長
相穆	50,000	2006	春川 효자동
鍾默	50,000	2006	群山 월명동
東燮	50,000	2006	晉州 신안동